

지역 소식 통

정읍시, 예방접종·생활 수칙 준수 적극 권장

인플루엔자 의사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읍시가 시민들에게 예방접종과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실천을 당부했다. 특히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어르신, 어린이, 임신부를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지난 9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인플루엔자 의사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표본감시 의료기관 300곳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52주차(2024년 12월 22~28일) 외래환자는 1000명당 73.9명으로 51주차(2024년 12월 15~21일) 대비 136%나 급증했다.

시는 감염 시 증증화 위험이 큰 65세 이상 어르신,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를 대상으로 오는 4월 30일까지 국가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읍 거주 60세 이상 시민과 기초생활수급자 중 50세 이상 시민도 보건기관과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민장학재단, 대학 신입생 100만원 지원

정읍시민장학재단이 지역 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하고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5년도 대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1인당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정읍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학생 본인과 그 부모(부 또는 모 포함)로, 2025년도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24년도 검정고시 합격자 중 대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이다. 장학금은 학생 본인 계좌로 지급된다.

집중 신청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2월 28일까지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2월 28일 이후부터는 시민장학재단(총정로 93, 평생학습관 2층)에서도 연중 접수가 가능하다. 필수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민장학재단 홈페이지나 전화(063-589-5577)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시민안전보험 확대

자연재해 사망·강력범죄 피해보상 등 새로운 보장 항목 추가·대폭 상향

정읍시가 시민안전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확대 운영한다. 올해는 관련 예산을 추가 확보해 자연재해 사망과 강력범죄 피해보상 등 새로운 보장 항목을 추가하고, 보장한도를 대폭 상향해 시민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시는 예상치 못한 재난과 안전사고를 당한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해 보장하고 있다.

올해 시민안전보험은 기존 14개 보장 항목에 △자연재해 사망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강

력범죄 피해보상금 등 4개 항목을 추가해 총 18개 항목을 보장한다. 또한, 대중교통 상해사망과 사회재난 사망의 보장한도는 각각 2,000만원으로, 농기계 사고 사망·후유장해는 최대 1,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정읍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보험기간 중 전입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고 발생 지역이나 타 보험과 상관없이 시민안전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 시민의 사망은 보장되지 않는다.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사고 발생 후 보험사 통합상담센터에 문의한 뒤 청구서와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보험사는 청구 내용을 심사한 뒤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화수 시장은 "정읍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물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자는 빠짐없이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은 지난 2일 취임한 정화영 부군수가 지난 8일부터 오는 13일까지 '부군수가 직접 찾아가는 주요업무 보고회'를 진행한다. /부안=김석진 기자

‘직접 찾아가는 주요업무 보고회’

부안군 정화영 부군수, 발 빠른 현안업무 파악 집중

부안군은 지난 2일 취임한 정화영 부군수가 지난 8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직접 일선 부서를 방문해 주요 업무 및 현안 사항을 보고 받는 '부군수가 직접 찾아가는 주요업무 보고회'를 진행한다.

보고회는 군 성장동력인 세비위 경제(수소산업, 부안형 푸드플랜, 글로벌 휴양관광) 부서를 시작으로 형식적인 보고 벗어나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군정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 2024년 군정운영 성과를 토대로

민생경제 회복과 지속 가능한 미래 산업 육성, 부안만의 차별화된 생활인구 유입 등을 위해 부서별 현안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부서간 협업 행정을 펼칠 것을 당부했다. 정화영 부군수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군 주요 현안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직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활력 넘치는 부안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2025년 한해 민선 8기 부안 대도약 시대를 열기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강조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마켓’, 라이브 스튜디오

온라인 쇼핑몰 운영 통해 지역 농산물 홍보 강화

고창군 온라인 쇼핑몰 '고창마켓'이 라이브 스튜디오 운영을 통해 지역 농산물 홍보를 강화한다.

10일 고창마켓에 따르면 지난해 말 '디지털타운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비 3억6,000만원을 들여 고창군 농산물유통센터 1층에 '라이브 스튜디오'를 구축했다.

해당 공간에서는 지역 농산물 홍보를 위한 콘텐츠 제작,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육성, 전문 영상 스튜디오를 통한 라이브커머스 운영, 고창마켓 입점업체 상세페이지 제품(영상, 사진) 촬영 등을 지원한다.

고창군민 누구나 고창군정 홈페이지(www.gochang.go.kr)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1인 미디어실, 영상 및 사진 스튜디오를 1일 2회 이용가능하다.

특히 온라인 판매로 입지를 다진 고창마켓과의 협업에도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앞서 고창마켓은 고창군의

대표적인 온라인 쇼핑몰로 2021년 출범 이후 150여개 업체 450여품목을 자사몰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우체국 등을 통해 수박, 복분자, 멜론, 고구마, 땅콩 등을 판매하면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왔다. 지난해에는 연매출 28억 4,000만원을 달성하는 쾌거를 거뒀다.

아울러 본격적으로 추진중인 사시사철 김치원료 공급단지, 김치양념가공 시설 구축으로 김치산업과 연계하여 농가소득 향상은 물론 매출상승을 이끌 전망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마켓을 통해 고창의 우수 농특산물이 전국의 소비자들에게 알려지고, 고창의 브랜드가 홍보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며 "고창마켓과 라이브 스튜디오의 협업을 통해 고창의 맛과 멋을 담은 다양한 콘텐츠들이 더욱 많은 소비자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테라릭스, 부안의 신재생에너지 기술력 세계에 알렸다

CES 참가 신재생에너지특구 글로벌화 박차

부안군은 하서면 신재생에너지특구에 입주한 테라릭스(주)(대표 김태영)가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 참가해 부안의 신재생에너지 기술력을 세계에 알렸다고 밝혔다.

테라릭스는 전북공동안을 통해 박람회 참여했고 이번 박람회에서 이동용 연료전지 시스템(1.5kW)을 전시하며 전 세계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문가들과 관람객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다. 테라릭스는 이번 CES 참가를 계기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과 시장 확대의 가능성을 열고 부안 신재생에너지특구의 성공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군은 이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수소에너지 산업 생태계 조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테라릭스의 이번 CES 참가를 통해 부안 신재생에너지특구가 글로벌 시장에서도 주목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테라릭스는 지난 2019년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에서 고분자 전해질 수소연료전지(PEMFC) 기술을 기반으로 창업한 6년차 벤처기업으로 2022년 도내 최초 아카데미론 기업 및 2023년 초격차 스타트업100+사업에 선정되는 등 관련 분야에서 꾸준히 성장하며 국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사계절 휴양명소 선운산도립공원 만든다

고창군의 대표적 산림휴양지인 선운산도립공원이 사계절 휴양명소로 탈바꿈한다.

9일 고창군에 따르면 선운산도립공원을 사계절 즐길 수 있는 휴양명소로 조성하기 위해 대대적인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총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생태숲정비와 노후 시설물보수, 등산로 위험구간 정비 등 이용자 중심의 정비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선운산 초입에 있는 '생태숲'의 대변화도 추진된다. 생태숲은 선운



산에 자생하는 고유 수종보호와 생태계 보존 및 자연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환경 교육장이다. 군은 생태숲의 가치를 이어가기 위

해 7억원을 투입해 야생화 추가식재, 방문자센터 등의 시설개선을 통해 선운산을 대표하는 산뜻한 공간으로 만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선운산도립공원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13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고창군은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관리와 발전 계획을 통해 선운산도립공원의 매력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